

교회 목표

신명한 예배
한국인문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21

이번 주 금요일(1월 1일)

신년감사예배 오전 9시 · 11시

다사다난했던 2009년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눅 18:13).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는 나의 의, 나의 능력을 드러내어 이 세상에서의 부요한 삶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로 가장하면서까지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요 42:6).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혈의 은혜입니다(엡 2:16).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마 16:24). 이 믿음을 실천하는 첫 걸음을 신년감사예배를 통해 시작하십시오. 신년감사예배는 오전 9시 · 11시이며,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니 온 가족이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금요일강의회는 없고, 기도원 금요일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제6차 학습세례식(신앙예배 시, 유아세례는 오후 3시 칼릴리교회) 및 공동의회(신앙예배 후, 세례교인은 필참)

*다음 주일(1월 3일), 2010년 제1차 성찬식(1~5부예배 시)

2010년 1월

교회주요일정

1일 (금) 신년감사예배(오전 9시 · 11시)

3일 (목) 제1차 성찬식(1~5부예배)
제3차 CMTC(신앙예배 후)

4일 (금) 공동부 수련회(6일까지)

5일 (목) 영아 · 유아 · 유치 · 초등1 · 2부
겨울성공학교

6일 (목) 정기강의(수요2부예배 후)

11일 (목) 공동부 수련회(13일까지)

13일 (목) 중학교의 주변연도
(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16일 (토) 중학교의 주변연도
(오우 2차, 남전도회)

31일 (목) 연교주일

크리스마스 메시지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1~7)

영광스러운 날 이면에 있는 심오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약속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천하로' 각자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 호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눅 2:1~3). 전 세계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놓으셨습니다(마 5:22).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눅 1:34, 38, 2:4~5 ; 마 1:24~25).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 약속하셨던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강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계

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별과 동방박사,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소소한 것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호세아, 미가 그리고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종의 사역은 모두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극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기적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초점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은 이 영광스런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눅 2:6~7). 예수님이 누울 만한 곳이 없는 것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돈, 사업 등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을 무시해 버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했고 예수님이 누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요 3:16).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능력, 극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COMMUNION & CHRISTMAS

*⁽¹⁹⁾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²⁰⁾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uke 22:19~20)*

Our Creator God is the greatest giver. He gave us life,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Gen. 2:7). He gives us every good thing, "Every good thing given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Jas. 1:17). Communion and Christmas are both God's greatest gift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His first greatest gift was given on Christmas,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Lk. 2:7). Everyone who has received God's gift of Jesus Christ can partake in Communion. Communion is about the greatest gift of all, for whoever partakes must remember that the gift of Christ is the only gift that brings salvation.

Jesus Christ gave His body,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Lk. 22:19). The prophets of old wrote about God taking a human body,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Is. 7:14). They even prophesied where this special body would be born,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Mic. 5:2). Our omnipresent Lord limited Himself to a human body. The apostle Paul explains God becoming a man in a more beautiful way,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Phil. 2:5~7). Jesus

Christ humbled Himself to take on the limitations of humanity. At Christmas we celebrate Christ taking a body, and in Communion we celebrate Christ giving His body on the cross for our sins.

Jesus Christ gave His blood,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Lk. 22:20). The very first Communion announced the New Covenant that Jesus Christ gave to us. The Virgin Mary wrapped her firstborn in cloths; these were baby cloths of the poor. They were clothing for the dead. This child was born to die. Mary laid the Lamb of God in a manger, a feeding place, for He would be sacrificed for all sin. Peter wrote of His redeeming precious blood,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1 Pet. 1:19). John wrote of His cleansing precious blood,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1 Jn. 1:7). At Christmas we celebrate the onflowing of Christ's blood to give Him life, and in Communion we celebrate Christ's outpouring of blood to give us life.

Christ gave His best. He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Mt. 26:39). He gave everything! He is always about His Father's business. Whenever terrible pain and temptation came to Him in this world, He was steadfast and victorious. When suffering, He neither complained nor threatened. Instead, He forgave His torturous killers. When dying, He was faithful and in control until the end.

My dear friends, today is our first Communion service since Christmas. Please let's look carefully and sincerely at the wondrous gift of Jesus Christ. What God is giving, let us take with great appreciation. What can you give to the One who gave His all? What can you give to the Christ of the manger and the cross? I hope you give Him your heart and life for His service. Amen. 

성찬식과 크리스마스

⁽¹⁹⁾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9~20)



김성환 목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크리스마스에 내려왔습니다.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눅 2:7).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눅 22:19).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그들은 이 특별한 아기가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 5:2).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5~7).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한된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20). 최초의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첫아들을 강보에 싸셨습니다. 강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싸던 천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덮던 천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기는 죽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짐승들을 먹이던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모든 죄를 위해 희생되실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우리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9). 사도 요한은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 1:7).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흘려보냈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쏟아 부으셨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끔찍한 고통과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죽인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죽어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고 자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진심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깊은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구유 안에 누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9년 십자가의 은총, 2010년 십자가의 능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 2009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10년은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강은영(집사, 9교구)

▶ 올 한 해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2010년도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최옥영(집사, 4교구)

▶ 동를 무렵, 기도를 마친 후 새벽 산책은 한없이 시원하다. 또 다른 하루의 새로운 아침이 느껴진다. 영은 말씀으로 축축이 젖어 있을 때 오감은 기쁨과 찬양으로 온 육신을 깨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쌓인 낙엽이 나는 화한 향기와 매일 아침 토끼와와 인사, 어제보다 오늘은 덜 춥다고 유난히 수다스럽던 새들, 그래, 지난 날도 즐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던 일 있었지만, 주님은 또 다시 내게 속삭여 주신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더지, 넌 아니?" 김수남(집사, 10교구)

▶ 주님, 2009년도에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 뿌린 씨앗과 거두어들이는 열매 사이에 동서의 차이가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 주세요. 전애영(청년부, 4교구)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로 된 포도주를 가져온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새해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차미선(집사, 17교구)

▶ 예배 때마다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전에 감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 죄와 어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느낀 감격과 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과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규숙(권사, 12교구)

▶ 마른 막대보다 못한 부족한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이 채워주신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새롭게 귀한 직분으로 주님을 감사드리며,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도록 충성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윤숙(권사, 6교구)

▶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미현(교사, 사랑부)

▶ 그릇되이 행하며 언제나 내 갈 길만을 고집하는 죄인을 올해에도 여전히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을 앞두고 다시 간구합니다. 회개와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제 안에 생명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부인되고 있어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높아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게 하옵소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내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김세량(권사, 16교구)

▶ 2009년도에 최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2010년도 크게 바뀌지 않을 나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주님! 하지만 새해가 시작될 때면 항상 받은 복을 세어보기보다는 받을 복을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정재용(집사, 2교구)

▶ 한 해를 돌아볼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한 해 동안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부르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숙(집사, 8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전 16:23~24)

▶ 2009년 한 해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가 넘칩니다.

많은 일이 있었으나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시는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쉬움도 많

고 후회도 많아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지만, 앞으로 나를 위해 베풀어주

심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 앞에서 다가오는 새해가 기대됩니다. 진실로

십자가 복음 위에 한걸음 더 서게 된 한 애임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나 행

한 것 죄분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매 순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09년을 마무리 짓고 새해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은하(집사, 5교구)

▶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힘써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조영철(안수집사, 11교구)

▶ 올 한 해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을 향하여 유일한 소망이

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미(집사, 1교구)

▶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최고로 슬프고, 최고로 힘들고 어려웠던 2009년을 주님의 천에서 주님의 복음 선포 일

을 하며 하루 매 노을 지듯이 조용히 견딜 수 있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진희(집사, 선교위원회 간사)

▶ 주 은혜 안에서 한해 잘 마무리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2010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임연수(안수집

사, 21교구)

▶ 한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인

도하심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좁은 길

을 걸으며 주님의 종으로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권경애(집사, 14교구)

▶ 2009년은 감사할 것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저의 일에 친히 간섭하시어 작은 사고나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여주셔서 두 학기의 성경공부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제가 먼

저 말씀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자녀양육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최미경(집사, 24교구)

▶ 십자가 붙들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슬픈 일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2009년도

전도회장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

소서. 윤석구(집사, 19교구)

▶ 올 한 해 동안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

요. 제기(몽골팀, 외선부)

▶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로만 걸어

가게 해 주세요. 세르게이와 제나 부부(CIS팀, 외선부)

2010년에도 단기선교는 변함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다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말로는 못 다할 위험이 내 가는 길 막아도
물속에 빠지는 자에게 생명줄 던지리라

주님의 능력 안으로

사역 첫날 어눌한 말이지만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기쁘게 복음을 전했는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자연을 그대로 닮은 그들의 눈동자가 어찌 그리 아름답든지,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인에게 잡혔고, 우여곡절 끝에 권고 추방을 당했다. 다음날, 우리는 그 도시를 떠났다. 마음이 착잡했다. 이것으로 주님의 사역이 끝인가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듯하고 주님께 빚진 자로서 빛만 더 하는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다음날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는 어린 영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구국희(집사, 8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5일(금) ~ 1월 2일(토)	예비대부 2팀	변창대
12월 25일(금) ~ 1월 2일(토)	6교구 4팀	송영성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5일(화) ~ 12월 23일(수)	24교구 6팀	박인호
12월 15일(화) ~ 12월 23일(수)	22교구 4팀	유동호

나의 기도제목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자

소수 민족이 많이 사는 곳이라 못 알아 듣는 척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중에 예비된 영혼들, 특히 젊은이들이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4일째 되는 날, 공원에서 전도를 마치고 나을 무렵 경찰들이 돌아다쳤다.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서까지 갔으나 신원을 확인한 후 금방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최경운(집사, 10교구)

전도지를 가리키며 읽어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도 열심히 선교 전도지를 읽는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은 글을 몰라 그냥 웃고 계시지만, 글을 아는 젊은 사람들은 소리 내어 전도지를 읽는다. 어린이들도 소리 내어 읽는다. 옆 동네로 이동하자 아이들이 따라와서 어린이 사역할 때 합세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첫날 만난 17명의 영혼의 이름들을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나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박미혜(집사, 21교구)

주님은 그곳에도

처음 바라보는 선교지는 말할 수 없는 총격으로 다가왔다. 쓰러질 듯한 움막집은 가족들의 오물로 뒤섞여 있었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며 가족들과 가족과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드렸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많은 생명을 미리 쳐소마다 예비해 놓으셨다. 정말 하고 난 다음날 새벽! 주님은 꿈으로 복음을 전할 사역자가 어떤 것인지 예비해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빛을 내며 즐기는데 그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두 눈만 깜빡거리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정운(집사, 20교구)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선교지에는 정교회와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선교사로 불러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나라 영혼들이 변화되어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주님께 고백한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고, 정말 주님의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곽국영(집사, 1교구)



청지기칼럼

교사의 자리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며 새웠던 계획 중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였다.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가 기도로 준비하며 세운 결심은 교사로 봉사하는 일이었다. 이미 3년 전에 중등부에서 봉사하며 교사의 직분과 이 사역이 주는 기쁨을 맛 보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고, 중등부를 떠나 있었다. 교사의 자리를 떠나며 "다시 교사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중등부로 오겠다"라고 말했던 게 계속 마음에 남아 다시 중등부를 찾게 되었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뻐한 것은 올망졸망한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 주실 때도 있잖아. 그건 왜 일까?" "예수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제가 잘 들으실 수 있게 크게 말씀 드릴게요."

한없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어른들이라면 정답이 무엇인지 마땅히 알고 있는 질문에도 늘 솔직하고 순수한 대답을 해 주었고, 이러한 아이들의 태도는 점점 틀에 박혀가는 나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고 싶다는 자각이 되었다. 오랜만에 교사의 자리에 다시 서며 아이들과 말은 잘 통할지,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들진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한 주 한 주가 흐르며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내가 아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자신의 기도제목을 나누어 줄 때는 한없이 큰 기쁨이 되기도 했다.

이제 중등 1·2·3부가 중등부로 통합되었고, 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사 자격으로 중등부에 서게 되었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은 중학교 2·3학년 아이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다. 하지만 어린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아이들이 느끼고 있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순수할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나의 주일이 주님으로 인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기도제목에 주님은 중등부를 통해 나에게 응답 해 주고 계시다. 언제나 사랑 넘치는 선생님들과의 교제, 한없이 순수한 아이들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나는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자족하는 마음들을 배워간다. 그래서 나는 이제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주일을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

김경은(교사, 중등부)

돌아온 타자

주님! 이 무례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생인의 한 사람이요 결코 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굴절 줄 모르는 고만잡고 무지함, 이기심 등으로 저의 삶은 늘 순탄치 못했고, 행복함과 즐거움보다는 피폐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 상처받아 지친 영혼을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녹색빛이 평온해 보이는 주님의 성전에 '굴지당어리 타자'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가족양육부에 들어오니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않던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통신 강화를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새가족양육부는 초신자들에게 참 신앙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특히 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매번 정곡을 찌르는 말씀과 기도 때문에 주일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심과 고심으로 굳어버린 저의 가슴이 녹아내렸고, 결국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과 평강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정인영(성도, 새가족양육부)



십자가의 길

2010년, 기도하자 그리고 순종하자

연대의 많은 교회는 부흥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는 데 전력을 투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역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방법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다. 즉,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의 용사들이란 것이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이나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임하시며,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부으신다.

지금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신다.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아라. 주수할 일꾼은 부유하고, 실력이 있는 일꾼이 아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인이다. 십자가의 일꾼은 순종인이다.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자. 2010년에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 새 가족 을 환영 하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61	채수진	17	중등부	류연주(17)
1562	김예은	7	중등부	최수민(7)
1563	김상현	4	중등부	김요한(5)
1564	이준민	4	중등부	이윤의(1)
1565	주지은	4	중등부	이현지(4)
1566	이병일	12	청년1부	김민용(18)
1567	박준진	3	중등부	김혜연(3)
1568	이상홍	24	청년1부	최영택(24)
1569	남언우	3	장년1부	남경숙(3)
1570	윤대희	3	장년1부	
1571	홍윤지	9	초등부	김연희(9)
1572	소완사	25	외선부	전현욱(17)
1573	이민정	17	대학부	김효남(12)
1574	박혜영	3	청년1부	오길재(19)
1575	정영훈	12	청년1부	김경미(21)
1576	주병주	21	대학부	강호성(23)
1577	신혜소	4	고등부	문주영(23)
1578	이승규	13	청년1부	
1579	신호은	14	대학부	안지영(18)
1580	박포일	16	대학부	정현우(11)
1581	박효진	3	청년1부	
1582	양장은	2	청년1부	곽상조(10)

* 순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 소식

모임

1. 남·녀 전도회장 전례 회례
일시: 27일(오늘)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발세

- 1. 이옥선 타교집사(이영자 집사의 부인·봉헌한 안수집사의 장인, 23교구 청송구역) / 17일 밤세, 19일 장례
- 2. 김복선 타교집사(김영희 집사의 모친·장남규 장로의 장모, 21교구 개산구역) / 18일 밤세, 21일 장례
- 3. 김원선 세례장자 집사의 모친·남부흥 집사의 장모, 21교구 광명구역 / 19일 밤세, 21일 장례
- 4. 서순남 성도(김용철 집사의 모친·김용철 집사의 시모, 6교구 장성구역) / 20일 밤세, 22일 장례
- 5. 유임순 타교집사(유복순 집사의 시모, 16교구 신당구역) / 20일 밤세, 22일 장례
- 6. 김집사 성도(문은성 성도의 남편·김송희 권사의 부인·장남규 성도의 장인, 1교구 복향구역) / 20일 밤세, 23일 장례
- 7. 이수영 타교집사(송정숙 집사의 시모, 1교구 역삼구역) / 21일 밤세, 23일 장례

2010년 제3차 CMTC(성료판)

일시: 1월 3일(다음 주일) 장소: 갈릴릴

시 간	강 의
18:15~18:25	오리엔테이션
18:25~19:15	주제강연(기독교에 나가는 선교)
19:15~19:40	2010년도 선교정책

제2차 CMTC 선교수련회 (평일 2박3일)
일시: 1월 9일(토) 13:00~17:00 장소: 제1교관 307호

2010년 사무직년차 요망 발간

각 구역에서 배부하였으나 성도님들은 수령해 가지기 바랍니다.

정년1부 발송일기 수련회

일시: 2010년 1월 1일(금) 13:00~17:00 장소: 제1교관 401호 본문: 다나엘서

2010년 전반기 전도지도원 성명록

일시: 2009년 12월 6일~2010년 1월 31일, 배우일 15:10~16:00 장소: 제1교관 407호

전도·선교 4시 기도회

일시: 매주일 16:00~16:30 장소: 갈릴릴

대신자 카드 작성 기간(각 구역별)

일시: 2009년 12월 20일~2010년 1월 30일

선교연도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제1교관 501(남부흥) 505(남부흥) 508(호도)

2010년도 전반기 흥원장성명 발

- 1. 선별기준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② 교회요령에 제정된 종교 고·대: 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 ③ 도내·외에 교회조직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각 구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 2. 신청기간: 2009년 12월 27일(오늘)~2010년 1월 10일(주일) 16:30까지
- 3. 신청서: 2010년 1월 22일(금) 13:00
- 4. 문의 및 신청장소: 교육과 552-8200(하 472, 473)

1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총)					찬양예배 (만수읍)	수요일예배 (문사)	
		I	II	III	IV	V		I	II
1	3	노은영	김정호	정철환	이상복	박광식	박우현	강 오	김송희
	10	주원철	장신숙	장대훈	전정환	엄복식	이정호	오정혜	이철희
	17	최한길	함정숙	이 훈	박성명	송두수	이진용	장광자	이명희
	24	전정숙	임정숙	이태식	이달용	정광수	허한선	장옥희	김희순
	31	김정숙	전진숙	이호일	박광용	배준식	이영호	이명희	

새벽기도회 (12/28~1/3)

	12/28 (월)	12/29 (화)	12/30 (수)	12/31 (목)	1/1 (금)	1/2 (토)	1/3 (주일)
설교자/기도자	강호성/송두림	안지현/문연식	유재진/박미연	강영구/박광자	양태선/허한선	탁정현/강영미	김성현/이옥주
설교자/본문	2:1~2:20 갈 1:1~10	2:1~2:20 갈 1:1~10	2:1~2:20 갈 1:1~10	2:1~2:20 갈 1:1~10	2:1~2:20 갈 1:1~10	2:1~2:20 갈 1:1~10	2:1~2:20 갈 1:1~10

예배 담당 (12/30~1/3)

날짜	예배	설교	사 회	기도	찬 양
12/30	수요 I	예수의 흔적을 주신 성도(갈 6:11-18) 김경원 목사	이화란	정은숙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마 1:39-45) 김성현 목사	유창환	홍원기	찬란한 새벽(심오한 찬양대)
1/1	신년 I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살전 4:13-18) 김성현 목사	양재용	강영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연합 찬양대·오케스트라)
	신년 II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살전 4:13-18) 김성현 목사	장 김	김희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연합 찬양대·오케스트라)
1/3	주일 I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눅 22:19-20) 김경원 목사	정원민	노은영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눅 22:19-20) 유재진 목사	강호성	김정호	저 아가들이 들어와네 / 스프라노 조혜인(임아누엘 찬양대)
	주일 III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눅 22:19-20) 김성현 목사	최한길	정철환	주를 경배하리 / 바비올린 김유정(멜로루아 오케스트라와 합창)
	주일 IV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눅 22:19-20) 박준식 목사	최진철	이정숙	오 바비올린 찬양대(오케스트라와 합창)
	주일 V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눅 22:19-20) 최정숙 목사	하종현	박광식	원망만이 날 위하여 / 스프라노 김진철(별명 찬양대)
주일예배	나는 세상의 빛이라(요 8:12-12) 김성현 목사	양재용	박우현		임아누엘 찬양대 / 공동부

예배 및 회의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3:00	본 당
주일전야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집회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인도어, 인도네시아어 및 수화로 제공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제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초 등 1 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10:30	갈릴릴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전 5:30	제2교육관 4층
	오전 12:15	제2교육관 2층

구 분	시 간	장 소
장 년 1 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507호
	오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2 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301호
	오전 12:15	갈릴릴
사 랑 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1층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타 아 부	오전 8:30~오전 6:00(주) 6:30~제9:00	선교관 1층
	새벽찬양부	오전 12:10
국회위원찬양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영유초중등지식	오전 8:30~오전 4:30
충원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어린이	주간교육

12월 중헌 기도의 창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자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① 중헌의 모든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에 수의 종용(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묵사의 영육을 강권(영하 2:9)하게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복음의 종용(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임회 및 부서집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골 2:2)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이 십자가의 복음(골 6:14)이 있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천국일꾼이 양성(골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골 1:3)와 총력 교회전환 전도(매일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식전(행 13: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행 13: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사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중헌의 재단(유자·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납골시설 건립 및 합영 중헌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본당 113호

2010년 겨울선교학교 및 수련회

유일한 선교사 훈련소(일시 4:13~18)

부 서	일 시	장 소
고등부	1월 4일(월)~6일(수)	중헌기도원
	1월 5일(화)	제1교육관 110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201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4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207호
유아부	1월 5일(화)	제1교육관 5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2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5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2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507호
초등부	1월 5일(화)	제1교육관 5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2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5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207호
	1월 5일(화)	제1교육관 507호
영아부	1월 11일(월)~13일(수)	중헌기도원
	1월 23일(토)	제2교육관 1층
	2월 27일(토)	제2교육관 2층
	2월 28일(주일)~3월 1일(월)	중헌기도원
	2월 28일(주일)~3월 1일(월)	중헌기도원

심 기 는 분 들

■ 사무장			■ 위임묵사			■ 서면지도			■ 원신지도		
노영환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유지태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임우현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홍원기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최한길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철환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상복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광식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우현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강영구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희원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원민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노은영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철환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상복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광식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우현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강영구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희원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원민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노은영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철환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상복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광식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우현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강영구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희원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원민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노은영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철환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상복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광식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우현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강영구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희원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원민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노은영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정철환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이상복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광식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우현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강영구	이훈	김종구	차신숙	이종석	박복자	박복자	김정호	김정호</			